

경제

대구 올 '신규 프리 스타기업' 15곳 선정

경제일반

f t v n g 기사내보내기

인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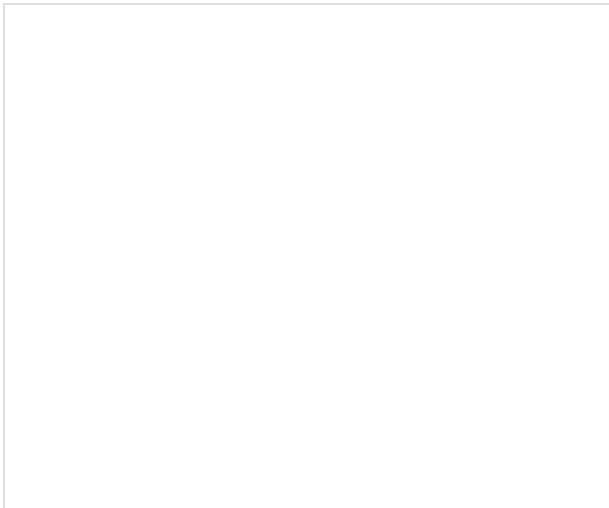
임훈기자 2019-08-30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5.4대 1로 역대 최고경쟁률 기록

ICT융합 등 미래산업 분야 8곳

기존 주력 7개사보다 많아 눈길

총 124곳으로 늘어...자금 등 지원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2019년 신규 프리(Pre)-스타기업' 15개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프리(Pre)-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대구시 강소기업 육성 성장사다리 정책의 도약단계 사업으로 '스타기업 100 육성 사업'과 함께 대구시를 대표하는 기업육성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81개사가 신청해 5.4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심사를 거쳐 최종 15개사가 선정됐다.

대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산업 분야(미래형자동차·의료·스마트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업이 절반 이상인 8개사로, 기존 주력산업분야(기계·자동차부품·섬유·도시형산업) 7개사보다 많아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신규 프리(Pre)-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계·자동차부품·섬유 분야에서 △주식회사 디월드 △<주>한일통신 △주식회사 삼우이엔지 △아진하이텍 △주식회사 선미 △<주>바이노텍 △유니크가 이름을 올렸다. 미래형자동차·의료·스마트에너지·정보통신기술융합분야에서는 △삼보산업 △주식회사 멘티스로지텍 △주식회사 써지덴트 △주식회사 알앤유 △주식회사 인코아 △<주>에너지피아 △주식회사 씨엘 <주>한국알파시스템이 선정됐다.

이로써 대구시 프리(Pre)-스타기업은 기존 109개사를 포함 124개사로 늘었다.

올해 선정된 15개사는 경영개선 로드맵 컨설팅지원, 사업화 수요 맞춤형 신속지원, 중앙 연구개발(R&D) 공모과제 기획·컨설팅지원 등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을 받는다. 또한 대구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 대구시와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 등의 지원도 받는다. 올해 선정된 15개사의 2018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47억원, 평균 근로자수 23명, 평균 수출액은 3억4천만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춘 프리(Pre)-스타기업이 대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중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한 때에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